

# 중학생 영어 학습자의 영어 능력 발달 연구\*

## -지역협력 중학교 방과후 영어 글쓰기 교실 사례-

양현권\*\*, 박지현, \*\*\*김기택, \*\*\* 이외경\*\*\*\*

### I. 서론

본 연구는 중학교 학생의 영어 능력 발달에 있어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영어과 정규 수업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현장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방과후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수요자(학생,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sup>1)</sup>”으로서, 기존에 방과후 교실(초등), 특기 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고교) 등으로 알려진 여러 프로그램을 2006년부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통합한 교육인적자원부/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사업이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다양한 강좌의 운영으로 1) 학교의 교육 기능을 보완하고, 2)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며, 3)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4) 지역사회 중심의 학교공동체 실현을 그 정책 목표로 삼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06년 12월 현재 전국 거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 (98.7%)에서 방과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전체 학생의 41.9%가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참여 학생들은 월평균 두 강좌 이상을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홍원, 2007).

본 연구에서 보고하고자 하는 방과후 학교 현장 사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의 신림중학교에서 진행한 '영어 글쓰기 교실'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연마하기 어려운 영어 생산능력을 효율적으로 익히는데 도움을 주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교육 이외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주된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신림중학교와 같

---

\* 이 논문은 2007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신림중학교의 이태원 교장 선생님과 영어과 담당 선생님들의 배려와 지원은 교육 현장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값진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익명의 논평자 세 분의 심사 의견은 논문의 논지를 다듬고 명확히 하는데 의미 있는 도움이 되었다.

\*\*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교육과(영어전공) 석사과정

\*\*\*\* 서울 신림중학교 교사

1) 2007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청 방과후 학교운영계획에서 발체함.

## 2 교육연구와 실천

은 지역공동체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어교육과(영어전공) 석사과정 학생들이 교사로 참여하였는데, 이는 지역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와 연계된 학교 공동체를 실현한다는 방과후 학교의 정책 목표와도 부합하는 것이다(표 1 참고).

표 1. 방과후 학교 정책 목표에 비추어 본 중학교 영어글쓰기 교실의 의의

방과후 학교 정책목표	정책 추진방안	신림중학교 방과후 학교 영어글쓰기 교실
학교교육 기능 보완	특기·적성 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및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영어글쓰기 수업을 통한 영어 생산능력 함양
사교육비 경감	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	저가의 비용(한 학기에 2만원,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무료)으로 운영
교육복지 실현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계층에 관계없이 교육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지역민의 교육을 위해 지역 공동체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신림중학교의 교육 자원 교류

## II. 학교 교육의 확장으로서의 방과후 프로그램의 의의와 역할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해당 언어를 듣고 읽을 수 있다고 해서 말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달리 말하면, 언어의 이해와 생산은 그 과정 자체가 달라, 이해(comprehension)의 과정이 생산(production)의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전자는 주어진 구조를 해석(decoding)하는 일이고, 후자는 구조를 만들어내는(encoding) 일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외국어 습득을 위해서는 이해 중심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학습자가 목표 언어를 직접 생산해보는 활동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Swain(1985)은 외국어의 습득을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서 이해 가능한 출력(comprehensible output)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외국어 학습자들은 문법이나 구조를 완전히 습득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글이나 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언어의 의미와 기능에 더욱 집중하여야만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학습을 통해 체계화되어야만 외국어 생산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외국어를 생산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 Levelt (1989)에 따르면, 언어요소(language item)는 의미 정보, 통사 정보, 형태 정보, 음운 정보를 담고 있는데, 생산이란 이 네 가지 정보를 문법에 맞게 종합하고 나열하는 일이다. 학습자는 작업할 수 있는 단기기억(working memory)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모든 정보를 적절하게 종합해 내는(encoding) 일, 즉 외국어를 자유롭게 생산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해가 생산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없음에 대해 경험적 증거를 보여준 연구로 Macrony와 Stone (2000)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불어의 현재완료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영국인 학습자들이 실제 발화 맥락에서는 이들 문법 범주를 거의 생략하고 발화함을 보여주었다. 굳이 다른 나라의 경험적 연구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외국어의 이해와 생산은 별개이며 외국어 생산이 이해보다 어렵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거치며 거의 10여 년간 영어를 공부하여 웬만한 영어 문장을 자신 있게 해석해 낼 수 있는 사람들도, 영어를 쓰거나 말하라고 하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사실 이해와 생산능력의 이러한 불균형은 우리나라 영어 공교육에 대한 비판의 초점이 되어 왔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7차 외국어과(영어) 교육과정에서는 언어의 네 기능—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를 균형 있게 가르칠 것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영어교과의 주된 목표를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기른다”라고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규 수업시간에 영어의 네 기능을 골고루 가르치는 일은 용이하지 않다. 일주일에 3~4시간의 정규 수업(중학생 기준)으로는 학생들에게 네 기능 중에서 한 가지만 잘 하게 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더구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읽기와 듣기 능력 평가에 중점을 두는 한, 교사들과 학생들은 말하기와 쓰기에 초점을 둘 수 없다. 또한 영어 실력에 큰 격차가 있는 서른 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가 의사소통접근법으로 영어 교육을 실시하기를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김선희(2007)는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영어수업을 대상으로 1년간의 현장 연구

#### 4 교육연구와 실천

를 하였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중학교에서 의사소통접근법을 적용하여 영어 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연구는 전체 영어수업 가운데 영어 진행수업비율이 상반의 경우 90%였으나 중반과 하반의 경우 각각 4%와 9%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또한 대부분의 영어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상반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분석한 결과 '발화유도'와 '발화반응'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영어수업을 대부분 영어로 진행한다고 해도 수업 진행이 원래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거의 의사소통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영어 진행 수업에서 몇 명의 소수의 학습자만 수업에 참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도 관찰되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육과정 개정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규 영어 교과 시간의 교수만으로 영어 말하기와 쓰기능력의 신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면 영어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익히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공교육은 어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 연구는 정규 영어 교과 수업의 보완으로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활용이 그 구체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착안하여, 중학교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글쓰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적용하였다. 이제 이하에서는 그 개발 및 적용 과정을 사례 보고 형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 III. 방과후 학교 영어글쓰기 교실

본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의 신림중학교에서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15주간 실시되었는데, 신림중학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협력학교이다. 수업 대상은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이었다. 2007년 2학기가 시작된 후에 2주간의 모집기간을 거친 결과 1학년 37명, 2학년 18명, 총 55명이 본 프로그램에 등록하였다.

침삭지도와 일대일 지도를 필요로 하는 영어작문 수업의 특성상 1학년에 등록한 37명의 학생들을 한 학급에서 지도하는 것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1학년 강좌를 19명과 18명의 두 학급으로 나누어 개설하고 2학년 강좌는 한 학급을 개설하였다.

각 강좌를 위해 3명의 교사가 초빙되었다. 교사들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

육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석사과정 학생으로, 이들 모두 중등학교 영어과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 교사들은 세 학급을 매주 번갈아 바꾸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표 2. 학급 구성

	학생	교사
A반	1학년 19명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교육과 석사과정 대학원생 3명
B반	2학년 18명	
C반	3학년 15명	

## 1. 수업의 구성

방과후 학교 영어글쓰기 교실의 수업은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마다 90분 동안 진행되었다. 전반적인 수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들의 글에 대한 총평과 피드백: 10분

먼저 수업의 시작부에서 교사는 지난주에 학생들이 제출한 글을 첨삭하여 나누어주고, 이에 대한 총평을 제시한다. 학생들의 글에서 좋았던 점에 대해 격려하고, 빈번한 오류에 대해서는 수정 방안을 제시한다.

### 2. 글쓰기 주제의 제시: 15분

교사는 해당 차시에 학생들이 쓰게 될 주제를 알려주고, 관련된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5분 정도 브레인스토밍을 유도한다. 그 후, 작문에 쓰일 단어나 구문들을 제시하고 함께 읽어보도록 한다.

### 3. 초고 작성: 15분

학생들은 주어진 주제에 관하여 15분 동안 자유롭게 영어로 글을 쓴다.

## 6 교육연구와 실천

### 4. 예시글 읽기: 5분

10분의 휴식 시간 이후, 학생들은 동일한 주제에 대한 예시 작문을 교사와 함께 읽는다. 이 때 글의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글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 5. 언어형식 학습: 20분

매주 한두 가지 정도 주제와 관련이 있고 영어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언어형식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교수한다. 교수는 연역적이고 명시적인 규칙 설명을 동반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출력 과업을 통해 귀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 6. 2차 글쓰기: 15분

학생들은 예시글 읽기와 언어형식에 대한 교수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글을 수정해서 써 보거나 비슷한 주제의 새로운 글을 써 보는 시간을 갖는다. 시간이 허락할 경우 지원자에 한해 자신이 쓴 글을 학급에서 발표할 기회를 부여한다.

## 2. 수업의 특징

### 2.1. 다양한 주제의 글쓰기

방과후 학교 영어 글쓰기 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영어 글쓰기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주제로부터 시작하여 영어글쓰기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줄 필요가 있었다. 이는 가장 친숙한 장르인 서사적 글쓰기(narrative)로부터 시작하여 묘사적 글쓰기(descriptive), 설득적 글쓰기(persuasive writing)로 점차 나아가는 것이 좋다는 장르 중심 쓰기 교수(Genre-based approach)의 제안(Reppen, 2002)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명절과 지난 방학 때 있었던 일’ 등 친숙한 내용에 대해 글을 쓰게 함으로서 내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영어로 글을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도록 유도하였다. 점차 수업시간에 ‘영화를 보고 줄거리를 요약하기’, ‘해외여행 상황을 가정하고 글쓰기’, ‘내가 꿈꾸는 미래의 가족과 집의 모습’ 등 현실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주제로 확장해 나감으로써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글쓰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3 참조).

표 3 차시별 글쓰기 주제

차시	글쓰기 주제
1	· 자기 자신과 가족을 소개하기
2	· 여름방학에 인상적이었던 일 기술하기
3	· 외국인에게 추석을 소개하고 추석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글쓰기
4	· 중간고사 대비 학습
5	· 프랑스 파리를 상상 여행하고, 친구에게 이메일로 편지 쓰기 · 내일 여행 일정에 대해서 친구에게 이메일로 편지 쓰기
6	· 내가 꿈꾸는 집에 대해 쓰기
7	· 외화 Mr. Bean을 보고 줄거리 쓰기
8	· 자신의 역할 모델에 대한 글쓰기
9	· 내가 가장 재미있게 본 영화를 소개하기
10	· 그림을 보고 방의 풍경을 묘사하는 글쓰기
11	·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기술하기
12	· 나의 공부습관에 관해 글쓰기 · 한국 중학생들의 일상생활에 관해 소개하는 편지글 쓰기
13	· 사진을 참조하여 창밖의 눈 내리는 풍경을 묘사하는 글쓰기 · 중학 입학 앞둔 사촌에게 나의 중학교 첫날에 대한 편지 글 쓰기
14	· Pocahontas를 감상하고 소개하는 글쓰기
15	· 방과후 영어글쓰기 교실에 대한 소감 쓰기

## 2.2. 정규 교육 과정을 고려한 언어형식의 선정

영어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주제에 대해 유창하게 자신의 생각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겠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하나의 명제를 담은 단문을 영어문장의 형식에 맞게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영어 문장의 형식에 익숙해지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의 매주 언어 형식(문법 사항)에 대한 교수를 실행하였다. 학생들에게 제시할 언어형식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첫째, 학생들의 정규 시간 학습 내용과 부합하는 언어형식을 선정하였다. 정규 교과 시간에 다루어진 문법 형식을 방과후 학교 영어글쓰기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출력 과업을 통해 연습함으로써 교수의 효과가 배가되기를 기대하였다. 한 학기동안 다루어진 언어형식은 과거시제, 미래표현, 조동사 can과 must, there-구문, 명사의 가산성 등이었다. 각 언어형식의 제시는 단발적인 교수를 통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영어작문에 나타난 중간언어 발달과정을 참고하여 필요한 경우 여러 주에 걸쳐서 첨삭, 명시적 언급 및 특정 과제 수행 등을 통해 확인 교수가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였다.

둘째, 해당 차시의 언어형식은 글쓰기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도록 하였다. 이는 진정성 있는 과업을 통해 학습자들이 해당 언어형식의 형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정확하고 유의미하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표 4. 차시별 언어형식

차시	언어형식
1	· Be동사 · 어순 (S-be-C/ S-V-O) · 빈도부사의 위치
2	· like, love, hate+ -ing, to V · want, hope, need+ to V
3	· 접속사: and, but, or, so, because · 과거 관련 표현: yesterday, last week, last night 등 · 과거시제
4	중간고사 대비



5	· 접속사 복습: 두 절의 주어 가 다를 때 주어 가 생략할 수 없음. · 과거시제 ·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will, be going to, plan to
6	· There is/are 구문
7	· 조동사: can, must
8	· 조동사: should, can
9	(학생들의 중간언어 발달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이해도 검사)
10	· 명사의 가산성과 불가산성
11	· 명사의 단수와 복수
12	· 관사: 무관사, 정관사, 부정관사의 쓰임
13	(영어 글쓰기에서 유의할 사항들에 대한 교수)
14	(팝송을 활용한 영어 익히기)
15	(종강에 대한 소감 나누기)

### 2.3. 학생들의 중간언어 발달 과정에 근거한 맞춤 지도

학생들의 개인별 능력 차이는 정규 교실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주된 장애가 되는 점 중 하나로 꼽힌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정규 교과 수업의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학생들의 개인별 발달과정에 따라 세분화된 지도를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학생들의 능숙도 수준과 학습자 언어(interlanguage)의 발달과정을 살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이 매주 제출한 작문을 복사하여 개인별 파일로 보관하고 이 통시적 자료를 시계열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개인별 지도는 작문시간 중에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주로 학생들의 작문에 대한 철삭을 통해 이루어졌다. 피드백은 글의 내용(content)에 관한 부분과 언어 형태의 정확성(form)에 대한 부분에 집중되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학생들의 영어 능숙도 수준에 따라 결정되었다. 먼저 영어 능숙도가 낮아 글의 유창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에는 정확성 보다는 내용과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제시함으로써 영어로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주고자 하였다. 유창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학생들의 경우에는 언어 형태의 정확성에 대한 피드백도 함께 제공하였는데, 언어형태의 오류가 나타난 부분을 모두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학습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피드백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영

어 문장의 기본 어순을 습득하지 못한 학습자에게 영어 동사의 굴절 표현이나 의문문의 정확한 어순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지적보다는 영어의 기본 어순을 습득하도록 돕는 데 집중하였다.

#### 2.4. 학생들의 동기와 흥미 자극

방과후 학교 수업은 출석의 의무가 있는 정규 과정이 아니므로 수업 참여는 온전히 학생들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본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의 경우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 신청을 한 학생들이기에 기본적으로 학습 동기와 참석률은 높았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교사들에게 요구되었다.

먼저, 교사들과 학생들 간에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이 학생들을 만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학생들과의 유대감 형성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작문에 나타난 생각과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에 대해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공감을 표시함으로써 학생들과의 거리감을 좁히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멀티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시각적, 청각적 자극을 제공하려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파리를 여행한다고 상상하는 글쓰기를 하는 경우, 학생들이 글을 쓰는 동안에 상송을 들려준다거나 파리의 다양한 명소들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교사가 경험적인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였다. 그리고 이따금 외화 드라마나 영화를 수업 중에 시청하며 영어와 영어권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침착 지도를 통해 알려 주는 동시에 수업 중에도 긍정적 평가를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학생들의 외재적 동기와 학습 과정 중에 생겨나는 결과적 동기를 고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내재적 동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습자들이 쓴 글들을 모아 정리하여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발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 IV. 방과후 영어 글쓰기 교실의 효과

방과후 학교 영어글쓰기 프로그램의 성취 목적은 학생들이 목표언어인 영어를 직접 사용해보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영어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영어글쓰기 실력을 배양하는 데 있었다. 방과후 학교 영어글쓰기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글쓰기 실력이 얼마나 신장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글쓰기 유창성 변화를 분석하였다.<sup>2)</sup>

Wolfe-Quintero, Inagki and Kim(1998)은 유창성을 측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서 W/C(하나의 절 안에서의 단어 개수)를 제안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채택하여 방과후 영어 글쓰기 교실에 가장 성실하게 참여하였던 10명의 학생을 선정해 3차시, 7차시, 12차시에서의 W/C를 비교하였다. 3차시의 글쓰기 주제는 “내가 추석에 했던 일”, 7차시는 “영화를 보고 즐거리 쓰기”, 12차시는 “한국 학생들의 일상에 관해 쓰기”였다. 이들 과제는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즐거리를 서술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다음 표 5는 위 세 주제에 따른 글쓰기에서 W/C의 수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도표화한 것이다.

2) Wolfe-Quintero, Inagki and Kim(1998)은 제2언어 작문 발달 연구들이 학습자들의 작문 발달 정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글의 유창성(fluency), 정확성(accuracy), 복잡성(complexity)을 계량화하여 사용해왔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유창성의 발달은 W/C(하나의 절 안에서 단어 개수), 정확성의 발달은 EFC/C(전체 절 중에서 오류가 없는 절의 비율), 그리고 복잡성의 발달은 DC/C(전체 절 중에서 종속절이 차지하는 비율)가 변화하는 정도로써 계량화될 수 있다. 이 중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유창성의 발달에 주목하였는데, 그 이유는 본 프로그램의 성취 목적-학생들에게 영어를 직접 사용해보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영어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영어글쓰기 실력을 배양하도록 함-이 정확성과 복잡성보다는 유창성의 발달과 가깝기 때문이다.

표 5. 차시별 W/C 증감도 변화

	3차시 W/C	7차시 W/C	12차시 W/C	증감 (12차시-3차시)
조W	4.40	4.33	6.17	1.77
김D	4.86	5.55	5.58	0.72
이J	5.12	결석	6.00	0.88
이I	5.35	5.82	5.52	0.17
곽S	5.47	5.53	5.6	0.13
김J	5.33	결석	5.14	-0.19
주S	4.67	4.29	5.8	1.13
주M	5.00	5.43	4.61	-0.39
정H	5.00	4.57	4.94	-0.06
김Y	6.10	5.50	5.75	-0.35
평균	5.13	5.13	5.51	0.38

표 5가 제시하는 대로, 학생들은 평균 0.38 정도 W/C의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증가는 한 학기 동안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인상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위 표 5에 제시된 변화가 방과후 영어글쓰기 교실을 통해서 유창성이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정규 수업시간이나 기타 과외활동을 통해서 영어 유창성이 증가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방과후 영어글쓰기 수업에 관한 학습자 본인의 판단을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수업 마지막 날에 시행하였다.

설문조사의 첫 번째 항목은 학생의 자기 평가로서 학생이 강의에 열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참여하였는지를 알아보았다. 두 번째 항목은 강의 자체에 대한 평가로서, 1) 강의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었는지, 2) 강의의 난이도는 적절했는지, 3) 선생님은 학생들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하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이었는지, 4) 이 강의를 통해 영어 글쓰기 지식과 능력이 발전하였고 관심도 깊어졌는지를 평가하게 하였다. 세 번째 항목은 서술형 평가로서, 이 강의에서 특별히 좋았던 점과, 이 강의에서 개선하기를 바라는 점을 기입하게 하였다(부록 1 참조).

다음은 설문 조사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표 6. 설문조사 결과

항목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정말 그렇다	총합
1. 나는 강의에 열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참여하였다.	0%	0%	12%	44%	44%	100%
2. 강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었다.	0%	0%	0%	31%	69%	100%
3. 강의 난이도는 적절했다	0%	0%	7%	62%	31%	100%
4. 선생님은 학생들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하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이었다.	0%	8%	15%	23%	54%	100%
5. 이 강의를 통해 영어 글쓰기 지식과 능력이 발전하였고 관심도 깊어졌다.	0%	0%	7%	31%	62%	100%

표 6이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과후 글쓰기 교실에 있어서 자신에 대한 평가와 강의 평가에서 만족도가 높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④그렇다’와 ‘⑤정말 그렇다’로 평가한 학생들의 비율이 대부분의 문항에서 90퍼센트를 넘거나 90퍼센트에 가깝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93%)이 본 강의를 통해 영어글쓰기 지식과 능력이 발전하고 관심이 깊어졌다고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영어 글쓰기 교실이 학생들의 영어생산 능력 함양에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은 네 번째 항목인 “선생님은 학생들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하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이었다” 문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77%), 이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1주일에 한 번, 1시간 30분 동안에 걸쳐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또한 교사들 나름대로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했지만, 학생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교감 및 상호 작용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학기의 마지막 시간에는 수강소감을 영어로 작성하는 과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업은 영어 글쓰기 수업의 일환이기도 하고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강의평가이기도 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방과후 영어 글쓰기 교실 수업에 대해 만족함을 나타내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문법적 오류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한다.

Every Saturday, I go to English writing class. We study English words, English sentence, and try to write a long sentence. I really like the teacher. They are kind, and sometimes give us something to eat. On English writing class, I have a experience of writing. So I feel happy. The teacher always helps us to write some words and let we see some movies, then we should write a long sentence. Now English writing class is over, I feel little sad. I want to study next time. I think it will help me to make English more good. (2학년 KJY)

한편 학생들의 수업 출석률은 1학년 평균 77.3%, 2학년 평균 68.8%로 꽤 높은 편이었다. 방과후 학교 수업이 정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은 출석에 대한 의무가 없다. 또한 2주 토요일과 4주 토요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방과후 영어글쓰기 교실에 참여하기 위해서 학교에 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수업이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와 같은 학교 시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학생들이 77.3%와 68.8% 정도의 출석률을 보인 것은, 방과후 영어글쓰기 수업이 학생들에게 실제로 효과적이었거나 흥미로웠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V. 전망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이제 어느 정도 학교 현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의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수업을 담당할 좋은 강사를 초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대학, 특히 사범대학 및 관련 대학원은, 교육과 관련하여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위한 교사를 이들 대학에서 찾아보는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우수한 교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학교와의 교류를 강화할 수 있고 지역 공동체의 교육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 한편 방과후 학교는 대학에서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훌륭한 연구 기반이 될 수 있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많은 경우 초중고등학교 현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이론적으로 우수하다고 알려진 교수 방법론을 실제에 적용하기 위해서, 혹은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실험과 관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현장에 대학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일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으로 용이하지 않거나, 이루어지더라도 일회적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정규 과정과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대학의 연구자들이 초중고등학교 현장과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제 본 연구를 통해 살펴 본 방과후 학교 영어 글쓰기 교실의 효과 및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영어 생산 능력을 신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교육 이외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학교 교육 기능 보완”,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 실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라는 방과후 학교의 정책적인 목표를 실현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둘째, 방과후 학교 영어글쓰기 교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학생들은 영어 유창성에서 발전을 보였고, 또한 스스로 영어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방과후 영어 글쓰기 프로그램은, 이 과업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의 학문 발전과 연구에도 의미 있는 도움이 되었다. 대학원생들은 좀 더 효과적인 교수방안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학생들의 글쓰기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의 영어 사용 능력에서의 발달과정을 체계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방과후 학교 영어 글쓰기 교실은 대학과 지역 학교의 긴밀한 교육망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전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교육부 (1997). 『제7차 외국어과(영어) 교육과정(1)』.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김기홍 (2006). 『지역네트워킹과 방과후 학교 활성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선희 (2007). 「영어로 진행되는 중학교 1학년 영어 수업의 교실 담화와 상호 작용에 관한 수업 현장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홍원 (2007). 『방과후 학교 성과분석: 2006년도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양현권 (2003). 「문법 이론과 외국어 교육」. *어학연구*, 39(3), 695-709.
- 이승미, 김대영, 홍후조, 민부자 (2007). 「방과후 학교의 운영체제 개선 방안 연구」. *교육과정연구*, 25(3), 289-314.
- 홍후조 (2005). 『방과후 학교의 교육활동 만족도 분석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국의 문헌>

- Levelt, W. (1989). *Speaking: from intention to articulation*. Cambridge: MIT Press.
- Macrony, G. and Stone, V. (2000). Pupil progress in the acquisition of the perfect tense in French: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nd use. *Language Teaching Research*, 4, 55-82.
- Reppen, R. (2002). A Genre-based approach to content writing instruction. In Richards, J.C. & Renandya, W.A.(Eds.),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An anthology of current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21-327.
- Swain, M. (1985). Communicative competence: some roles of comprehensible input and comprehensible output in its development. In Gass, S. and Madden, C., (Eds.), *Inpu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New York: Newbury House, 235 - 256.
- Wolfe-Quintero, K., Inagki, S. and Kim, H. (1998). *Second language development in writing: measures of fluency, accuracy, and complexit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부록 1

### 신림중 방과후 학교 영어글쓰기 교실에 대한 만족도 조사

#### ■ 학생의 자기평가

항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정말 그렇다

1. 이 강의에 열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참여하였습니까?

#### ■ 강의 평가문항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정말 그렇다
1. 강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었다.					
2. 강의의 난이도는 적절했다.					
3. 선생님은 학생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하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이었다.					
4. 이 강의를 통해 영어 글쓰기 지식과 능력이 발전하였고 관심도 깊어졌다.					

#### ■ 강의평가

1. 이 강의에서 특별히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2. 이 강의에서 개선하기를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 Interlanguage Development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A Case Study of After-school English Writing Program—

Hyun-Kwon Yang, Jihyun Park, Kitaek Kim and Oy-Kyung Lee

This paper reports on an after-school English program, focusing on its pedagogical effects on the interlanguage development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The pilot program was initiated and fostered by College of Educ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mplemented and carried out at Sinlim Middle School. Three graduate students from the university taught English composition to 55 middle school students.

The 15 week program not only improved the writing skills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but also provided the graduate students with meaningful opportunities to put what they learned into practice. In addition, the program strengthened and solidified the educational network between the two educational institutions located in the same community.